

시민참여형 신규 시책 발굴보고회 개최

군산시, 2021년도 국가예산 사업 등 검토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2021년 국가예산확보 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18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는 강임준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과 2020년도 신규 시책사업 발굴 상황을 보고받고 사업 효과성 검토와 정부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발굴보고회에서는 기존의 신규 사업 발굴의 관행을 탈

피하고 빠른 발굴 시스템 도입과 시민참여형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전략안이 제시됐다. 군산시는 먼저 그동안 신규 사업 발굴보고회가 당해 연도 1월에 개최되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발굴시점을 1분기 앞당겨 실시해 발굴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대응 로드맵을 변경했다. 또한 행정 위주의 사업 발굴로 인해 산업체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사업 발굴이 미진했다고 판단하

고 다음달까지 분야별 자체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참여형 국가사업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2021년 신규 국가사업은 29건 총사업비 6,578억원 규모로 ▲대형구조물 설치 및 운송지원 인프라 구축사업(330억), ▲새만금수산물가공클러스터 사업(2,530억), ▲폐철도 활용 도시바라길 숲 조성(200억), ▲가족센터 건립(61억), ▲스카이워크 조성사업(30억), ▲플로팅 주차장 표준모델 인프라 구축사업(150억) 등을 중점으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2020년 시책사업 발굴 보고도 함께 진행돼, 총57건, 총사업비

293억원 규모의 시민체감형 신규 사업들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주요사업의 발굴과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며 “금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역점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신규 국가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 중앙부처 예산변영 협의를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행복콜버스는 이달부터 운행을 본격 시작했다.

익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총력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거점소독시설 확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익산시는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으로,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양돈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시는 위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에 들어갔고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해 바이러스 차단에 나섰다. 또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양돈 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에도 주기적인 자체 소독 실시 등을 당부했다. 축산과 관계자는 “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선제적인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 농가에서는 모인, 행사 및 타지역 돼지 반입 금지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익산시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4인가구 203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4만700원, 2인가구는 16만1000원, 3인가구는 19만4000원, 4인가구는 22만100원이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의 주택 수선비용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90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 차단 방역 총력

여행자제·외국인 노동자들 자국 축산물 반입차단 강화

군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변국(중국, 북한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발생상황을 SMS등을

통해 축산 농가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돼지사육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농장 출입구에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생산자단체 회의 등을 통해 발생국 여행자제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국 축산물 반입차단을 철저하게 교육과 흥

보를 강화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을 농장별로 지정해 소득, 방역실태, 이상축 발생여부 등을 주1회 이상 현지 지도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방역취약지인 가든형식당, 재래시장 산단 판매소, 산란계 등에 대해 간 이킷트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구제역 접촉도 누락되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점검을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제5회 군산장애인 인권영화제 개막

24일부터 26일까지 군산어린이공연장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센터장 이승복)가 ‘차별에 맞서다’를 주제로 제5회 군산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군산어린이공연장(구 KBS방송국)에서 상영하는 장애인 인권영화는 전편의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영화 ‘미라클 벨리에’, ‘손으로 말하기까지’와 ‘결음이 빠른 달팽이’를 포함해 3일간에 걸쳐 총 10편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영화제에서 오후 2시에 상영하는 영화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들

대상으로, 오후 4시 30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로 맞췄으며, 저녁 7시에는 장애인과 장애인인권을 생각하는 일반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으로 편성했다. 이승복 센터장은 “제5회 군산장애인 인권영화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말과 행위가 바뀌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행복콜택시·버스’ 인기

27곳 마을 별 1일 1회 운행... 요금도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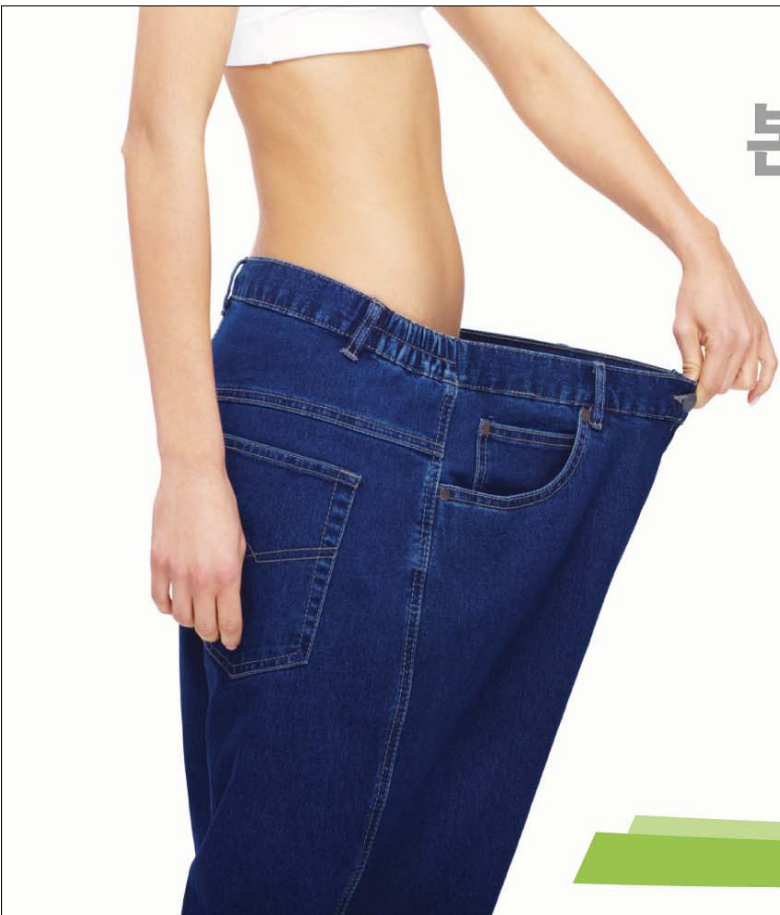
익산시는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마을 주민을 위해 전화 한 통이면 이용할 수 있는 행복콜택시와 콜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익산시 행복콜버스는 이달부터 운행을 본격 시작했다. 행복콜버스 도입에는 국·시비 각각 50%씩 2억 5천만 원이 투입됐다. 여산면 지역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버스 2대가 5개 노선으로 나뉘어 오전 7시~9시, 오후 4시~6시

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그 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버스를 호출해 (익산여객 834-3330, 광일여객 837-8383) 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운행효과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농촌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지역안보태세강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군산시가 지역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18일 군산대대(옥구를 상경리)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6명(의장 군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2019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19년도 1~3분기 통합방위 추진성과 및 3~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각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군산대대 예비군 훈련장의 교육 및 시설을 참관하여 훈련생들을 격려하고 예비군 지원을 위한 통합방위 위원들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협의회 의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은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고 회의에 참석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는 민·관·군·경 등 각급 기관 단체장 16명으로 구성돼 통합방위대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등을 목적으로 분기별로 개최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